이승엽 '2000안타'의 순간

역대 최고령·최소시즌 대기록



삼성 이승엽이 역대 최소시즌(14년), 최고령(40세20일) 개인 통산 2000안타 기록을 달성했다. KBO리그 통산 역대 8번째 대기록이다. 이승엽은 7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kt전 7-13으로 뒤진 7회말 1사 1루, 상대 투수 이창재를 상대로 볼카운트 1B-2S, 연속해서 5개의 파울을 친 끝에 2루수 박경수의 글러브를 살짝 벗어나 좌익수 쪽으로 흐르는 안타를 쳤다. 이날 3안타를 친 이승엽은 통산 2001안타를 기록했다.

삼성, FA 최형우·차우찬 잡겠다지만…

베이스볼 브레이크

재정탄탄 지방구단, 최형우 영입 노려
차우찬도 복수의 국내팀·일본서 관심



최형우



차우찬

삼성이 올 시즌 종료와 함께 프리에이전트(FA)가 되는 4번 타자 최형우(33)와 좌완 에이스 차우찬(29)을 무조건 잡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삼성 경영진은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팀 전력운용에 대해 고민과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류중일 감독과도 이 같은 방향에 대해 교감을 나눴다.

삼성은 올 시즌을 끝으로 류 감독과 3년 계약이 끝난다. 재계약은 시즌 종료 후 그룹 최고위층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지난해 페넌트레이스 1위와 한국시리즈 준우승에서 하위권으로 급격히 추락한 만큼 감독 거취문제, 전력보강 등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다. 특히 최형우와 차우찬이 한꺼번에 타 팀으로 떠날 경우 삼성은 급격한 전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

타격 1위와 타점 1위 경쟁 중인 최형우는 3할과 30홈런, 100타점을 동시에 기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타자다. 만 33세로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지난 수년간 스스로 내구성을 입증해왔다. 차우찬 역시 시즌 10승 이상이 가능한 투수며 이닝소화와 탈삼진 능력이 빼어나다.

삼성의 확고한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올 겨울 스토브리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최형우는 우승을 노리는 지방A구단과 둘러싼 다양한 소문이 나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원 소속팀과 우선협상기간도 없다. 각 팀은 FA선수를 놓고 무한경쟁을 해야 한다.

최형우를 영입하면 당장 팀 공격력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필요한 팀은 당연히 관심이 높아진다. A팀은 막강한 자금력까지 갖추고 있어 실탄 경쟁에서 과거의 삼성이 아닌 현재의 삼성이라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상황이다. 차우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팀도 복수다. 단 감독 거취와 투자 방향에 따라 변수가 있다.

삼성은 스토브리그에서 국내 팀 뿐 아니라 해외 팀들과도 최형우, 차우찬을 놓고 경쟁해야 한다. 최형우는 오승환과 같은 에이전트와 이미 손을 잡았다. 일본과 미국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해외진출 모색 가능성도 높다. 차우찬도 일본통 에이전트와 함께하기로 했다.

한 현역 감독은 "최형우의 가장 큰 매력은 건강한 몸과 꾸준함이다. 일본에서도 충분히 통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만약 삼성이 확고한 내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FA전쟁에서 패해 핵심 전력을 잃는다면 팀 안팎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전력적인 측면에서도 어쩔 수 없이 우승 도전이 아닌 팀 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할 수도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17경기 남은 2위 NC…홈경기 없는 3위 넥센

잔여경기 팀별 최다 11경기차
'5강 경쟁' SK는 6경기만 남아

가을야구의 주인공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잔여경기 일정이 나왔다. 각 팀은 벌써부터 계산기를 두드리며 분주히 막판 레이스 계획을 짜고 있다. KBO는 7일 우천순연된 55경기에 대한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거행된다. 잔여경기가 가장 많은 팀과 가장 적은 팀의 차이가 11경기나 날 정도로 팀별로 '극과 극'의 상황을 보이고 있다.

● '최다 17경기' NC는 안방 이점, 넥센은 오직 원정만…

전체 잔여경기 일정은 우천순연 경기가 가장 많은 NC에 맞춰 짜여졌다. 무려 17경기로 휴식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경기를 치른다.

다행히 초반 일정을 제외하면 이동이 거의 없다. NC는 잔여경기 일정 첫 날인 20일 수원 kt전을 시작으로 21일 잠실(LG전)과 22일 대전(한화전)을 찍고, 마산으로 내려간다. 다음달 1~2일 부산 원정(롯데전) 외에는 마산에만 머문다. 평소처럼 선수단을 운영하면 되지만 타 팀에 비해 체력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홈경기가 많은 건 이점이 될 수 있다. 3위 넥센의 추격을 따돌릴지, 1위 두산을 추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고척스카이돔을 홈으로 쓰기에 홈구장 잔여경기가 없는 넥센은 떠돌이 생활을 한다. 20~21일 광주에서 KIA와 2연전을 하고, 하루 휴식 후 24~25일 대구에서 삼성을 만난다. 9월 마지막 주엔 29일 잠실 두산전과 10월2일 대전 한화전만 치르고, 10월4~5일 마산 NC 2연전, 7일과 8일 사직 롯데 2연전으로 시즌을 마감한다.

● '일주일 2경기' SK와 '이동 변수' KIA, '무난' LG

4·5위 싸움을 펼치는 3팀의 상황도 재미있다. SK는 잔여경기 편성이 6경기에 불과하다. 일주일에 단 2경기만 치르면 된다. 23일 수원 kt전과 25일 문학 한화전을 시작으로, 30일과 10월1일 LG와 잠실 2연전이 있고, 10월6일 마산 NC전과 시즌 최종전인 8일 문학 삼성전만 치르면 시즌이 끝난다. 지방 이동은 1번뿐이다.

원투펀치인 김광현과 메릴 켈리만 선발등판시킬 수 있는 일정이다. 불펜 총력전도 가능하다. 다만 일주일에 2경기만 치르기에 실전감각 유지가 문제다. 또 4·5위 경쟁권에 있는 다른 팀들의 성적을 바라만 봐야하는 초조함이 생길 수 있다.

10경기가 편성된 KIA는 '이동'이 변수다. 20~21일 넥센과 홈 2연전 이후, 23일 마산 NC전에 25일에는 수원 kt전을 치러야 한다. 다시 27일 광주에서 LG와 홈경기를 갖고, 30일 대구 삼성전에 이어 10월1~2일엔 다시 안방에서 kt를 만난다. 마지막 주엔 10월6일 광주 삼성전과 8일 대전 한화전만 남는다.

마찬가지로 잔여경기 10경기를 갖는 LG는 무난한 일정이다. 일주일에 3경기, 3경기, 4경기로 고르게 편성이 됐고, 원정은 20일 대전 한화전, 27일 광주 KIA전과 10월3~4일 대구 삼성 2연전, 6일 사직 롯데전으로 이동도 무난하다.

● 최대 7연전까지만… 이틀 연속 DH 없어

향후 취소 경기가 나올 경우, 예비일 편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튿날 더블헤더, 동일 대진의 둘째 날 더블헤더, 동일 대진 싱글경기 더블헤더, 추후편성 순으로 진행한다. 최대 7연전까지만 가능하고, 이틀 연속 더블헤더는 없다. 또 일주일 기준 8경기(더블헤더 포함) 이상 편성하지 않는다. 잔여경기 취소 시 포스트시즌 진출팀과 관계없는 대진일 경우 포스트시즌 이동일, 정규시즌 4·5위 팀과 4·5위 결정과 관계없는 팀간의 경기는 정규시즌 최종일과 와일드카드 결정전 개막일 사이 이동일에 거행할 수 있다.

이명노 기자 nirvana@donga.com

2016 KBO리그 정규시즌 잔여경기 일정

날짜	요일	잠실	문학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사직	마산
9.20	화	삼성-두산		NC-kt	LG-한화		넥센-KIA		
21	수	NC-LG				롯데-삼성	넥센-KIA		
22	목	kt-두산			NC-한화				
23	금			SK-kt		두산-삼성			KIA-NC
24	토	한화-LG				넥센-삼성			롯데-NC
25	일		한화-SK	KIA-kt		넥센-삼성			롯데-NC
27	화				두산-한화		LG-KIA	kt-롯데	삼성-NC
28	수				두산-한화			kt-롯데	삼성-NC
29	목	넥센-두산						kt-롯데	삼성-NC
30	금	SK-LG				KIA-삼성			한화-NC
10.1	토	SK-LG					kt-KIA	NC-롯데	
2	일				넥센-한화		kt-KIA	NC-롯데	
3	월	한화-두산				LG-삼성			
4	화	롯데-두산				LG-삼성			넥센-NC
5	수			한화-kt					넥센-NC
6	목						삼성-KIA	LG-롯데	SK-NC
7	금							넥센-롯데	kt-NC
8	토	두산-LG	삼성-SK		KIA -한화			넥센-롯데	kt-NC

※예비일 제외, 고척 잔여경기 없음.

김성근, 우리들의 일그러진 '아큐'

〈소설 '아큐정전'의 주인공〉



김영준의 18.44m

인간(人間)을 풀어쓰면 '사람 사이'다.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다울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맥락에서 영웅 혹은 초인도 결국 그 시대의 구성원들이 필요에 의해 만드는 것이다. 유한적 인간이 초월적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개인의 역량으로 이뤄질 수 없는 영역이다. 그러나 인간은 어쩌다 한번 영웅의 지위에 도취되면 자기가 잘 나서 이 세상이 움직인다고 과신하고 싶어 한다. 일시적 성공의 방식을 또 적용하려 든다. 그러다 파멸한다. 이런 비극은 역사의 귀결이다.

한화 김성근 감독이 자주 쓰는 레퍼토리가 "김성근이니까 당한다"다. '왜 나만 가지고 이러느냐'다. 그런데 정작 이 질문은 언론이 아니라 자신한테 할 말이다. '대체 세상은 왜 그럴까?' 김 감독의 말과 글을 접하면 일관되게 추구하려는 미학(美學)이 엿보인다. 신념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비장미다. 문제는 김성근의 사고체계가 나름 완결적이지만 극도로 편협하다는 데 있다. 어려운 말로 '도그마', 즉 독단적인 신념이자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비판과 증명을 허용하지 않는 교리에 가깝다. 결국 김 감독은 자기 영업의 자유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면 사정없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이 폭력성의 반작용이 지금 '김성근 때리기'의 본질이다. 그 결과 김성근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권위는 해체됐고, 희화화되고 있다.

김성근이 극복해야할 적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 있음을 멀리 갈 것도 없이 김 감독의 분신과 같은 아들 김정준 코치가 썼다는 '김성근 그리고 SK 와이번스'라는 책에 있다. 이 책에서 김정준은 "지금까지 맡았던 팀 중에서 최악이야. 이 선수들 데리고 어떻게 야구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김성근의 말을 담았다. 이 팀은 2006년 겨울 SK였고, 김 감독에게 이런 '형편없는' 팀을 넘겨준 '무능한' 지도자는 제자 조범현 감독(현 kt 감독)이었다. 이러고도 이 부자(父子)가 조 감독 얼굴을 무슨 낯으로 보는지 범인(凡人)의 짐작으로는 헤아릴 길이 없다. 이렇게 자기들 이익만 챙기려니까 '왜 NC 김경문 감독은 퇴장시키지 않느냐', '넥센 염경엽 감독의 혹사는 지적하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을 터다. 나아가 김정준은 그 책에서 "SK 야구가 재미있고, 없고는 야구를 보는 눈의 차이 때문"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전했다. 그러니까 '김성근 야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구 보는 눈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현대판 아큐의 정신승리가 따로 없다. 세상에서 관용할 수 없는 가치가 딱 하나 있다. 바로 다른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불관용이다. 이 부자(父子)가 딱 여기에 해당한다.

스포츠2부 기자 gatzby@donga.com

경찰야구단, 6년 연속 퓨처스 북부리그 우승

남부리그 상무 5년 연속 1위 영예
상무 문성현 '다승·방어율' 2관왕

2016 KBO 퓨처스리그가 대장정을 마감했다. 올해도 우승은 경찰과 상무의 차지였다.

올 시즌 퓨처스리그는 12개 팀이 북부(경찰 고양 두산 화성 SK LG)와 남부(상무 롯데 kt 삼성 KIA 한화) 2개 리그로 나뉘어 동일리그 팀간 12차전, 인터리그 팀간 6차전씩 팀 당 96경기, 총 576경기를 치렀다. 북부리그에서는 경찰야구단이 59승8무29패(승률 0.670)로 6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고, 남부리그에선 상무가 60승9무27패(승률 0.690)의 성적으로 5년 연속 1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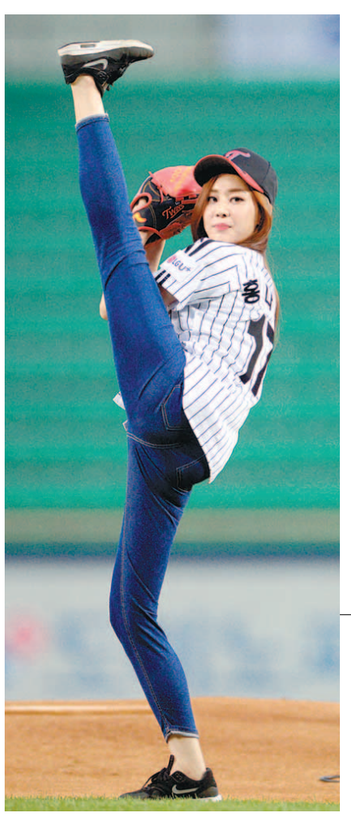
개인 타이틀 역시 상무와 경찰이 강세를 보였다. 남부리그에선 상무가 개인타이틀 5개 부문을 모두 석권했다. 문성현이 다승(9승)과 방어율(3.34) 2관왕에 올랐고, 김헌곤이 타율상(0.378), 한동민이 홈런상(22개)과 타점상(85개) 2관왕을 차지했다. 북부리그에선 방어율 1위 LG 장진용(3.75)을 제외하고 경찰야구단의 몫이었다. 박정수가 다승(11승), 박찬도가 타율상(0.376)을 수상하고, 이성곤이 홈런상(19개)과 타점상(94개)을 석권했다. 또 상무 권희동, 경찰 양원혁, 화성 임병욱이 역대 23~25번째 퓨처스리그 사이클링 히트를 차례로 기록하는 등 기록도 풍성했다.

KBO는 야구가 없는 월요일 저녁 먼데이나이트베이스볼을 편성하는 등 총 25경기를 생중계했고, 평소 경기가 없는 춘천과 군산에서 각각 5년만, 3년만에 경기를 개최하는 등 퓨처스리그 활성화와 팬서비스를 위해 노력했다.

이명노 기자

2016 KBO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북부리그					남부리그				
방어율	다승	타율상	홈런상	타점상	방어율	다승	타율상	홈런상	타점상
장진용	박정수	박찬도	이성곤	이성곤	문성현	문성현	김헌곤	한동민	한동민
(LG)	(경찰)	(경찰)	(경찰)	(경찰)	(상무)	(상무)	(상무)	(상무)	(상무)
3.75	11승	0.376	19홈런	94타점	3.34	9승	0.378	22홈런	85타점



KIA, 오늘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

KIA는 8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NC전에서 법무부와 함께 '배려, 클린 스포츠' 캠페인을 벌인다. 이번 캠페인은 5월31일 법무부와 KBO가 맺은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과 클린 베이스볼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이날 캠페인에는 KIA 타이거즈 허영택 단장을 비롯해 오세인 광주 고검장, 김회재 광주지검장, 이상호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법사랑 서포터즈와 광주준법지원센터 직원 등 70여 명은 다채로운 이벤트를 통해 사인볼을 증정한다.

우와~ 발이…

2016 미스코리아 미 홍나실이 7일 잠실 넥센-LG전에 시구자로 나서 힘차게 공을 던지고 있다. 잠실 |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편집 |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